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감염병 취재·보도준칙> (안)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과 방역 안전 조치에 유의하면서 원활한 취재 및 보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감염병 취재·보도준칙을 정하여 시행한다.

1. 언론사와 취재기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유의하면서 안전한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행한다.
2. 언론사와 취재기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가 발효될 때에는 정부의 해당 방침에 유의하면서 안전한 취재 및 보도 활동에 임한다.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조치가 시행될 때에는 취재기자의 취재원에 대한 취재는 비대면 취재를 권장한다.
4. 언론사는 언론사 사무실에 대한 방역 안전에 만전을 기하면서 취재기자에 대한 마스크, 고글, 장갑 등 필수 방호장비를 지급한다.
5.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비대면 취재를 권장하지만 불가피한 외부 취재 시에는 다음의 준칙을 지킨다.
 - 1) 취재기자의 사전 발열 체크 및 사후 발열 체크 시행
 - 2) 취재기자에 대한 고글, 장갑, 마스크 착용 시행
 - 3) 장외 기자회견, 집회 등 취재 시 취재원으로부터 3m 이상 거리 두기 시행
 - 4) 실내 기자회견 취재 시 최소 2m 이상 또는 3m 이상 거리 두기 시행
 - 5) 기자회견, 집회 취재 시 등 언론사 사진·영상기자 간의 무리한 밀착 접근과 과도한 취재 경쟁을 자제한다.
6.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감압병동/보건소/검진소 등 코로나19 진료 및 치료기관에 대한 현장 취재는 삼간다.
7.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될 경우에 취재기자의 외부 취재 시 취재를 완료한 후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현장 퇴근을 권장한다.
8.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경우 주요 출입처 체류 취재기자의 경우, 출입처와 협의하여 비대면 취재를 권장한다.
9. 감염병 발생, 확산 시 취재현장에서의 취재기자 및 취재원 안전 보호를 위하여 언론단체(기관)의 협의에 따른 현장 풀기자단 구성과 풀취재 등에 적극 부응한다.
10. 확진자(감염인)에 대한 대면 취재는 삼간다.

11. 언론사 소속 임직원의 감염병 확진 시 해당 인원 에 대한 즉각적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
이 경우 사내외 접촉자 및 사무실에 대한 방역 당국의 필요한 조치에 적극 부응한다.

12. 언론사와 취재기자는 취재 및 보도 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에 대한 명칭을 공식 사용한다.

13. 언론사와 취재기자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안전을 위하여 취재원, 시민,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해를 끼칠 수 있는 미확인 정보 등 허위조작정보(일명 가짜뉴스)의 유포 및 확산을 경계하며, 사실(팩트)에 대한 엄정한 확인 취재를 통한 보도 원칙을 지킨다.

14. 언론사와 취재기자는 감염병 관련 오보, 왜곡보도를 경계하며 해당 보도가 오보, 왜곡 보도임이 객관적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즉각적으로 정정 및 반론보도 등 시정 조치를 취한다.

15. 언론사와 취재기자는 현업 언론단체의 감염병 보도준칙에 적극 부응한다.

* 부칙 : 이 감염병 취재·보도준칙은 취재기자, 언론단체, 의료인,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황과 여건에 맞게 개정, 시행할 수 있다.

2020년 8월 28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김철관)